하나님 마주보는 법

(요2:13-25)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마주보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마주본다는 말의 뜻이 결국 사전적으로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것, 이게 바로 만남입니다.
마주볼 뿐인데 이 마주봄이라는 것에 의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 강력함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결과 앞에서 몸과 마음이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주보는 것이 만남인데 만남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예를 들어보면…
김춘추와 당태종이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나당연합군이에요,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삼국이 통일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원산 이북으로 만주벌판까지의 영토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신라에 의해 삼국통일이 이루어졌지만 만주 영토를 지금까지 상실한 결과를 빚게 되고, 그것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당연합군은 김춘추와 당태종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런 역사적인 예를 들면, 이성계와 정도전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는 고려말 신흥 무사계급과 사대부가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한반도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과 지미카터가 만납니다.
그래서 제2의 한반도 전쟁이 막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만납니다, 이때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어 6공이 출범하게 되고 군사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만남이 마주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술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든 간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취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하나님께 취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취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성전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 공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전을 두 번 정화하셨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마지막 때의 사건일지라도 그 의미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성전정화를 앞에 갖다 쓴들 그게 잘못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신앙을 이해하는 사고 구조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 일으키셨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성전정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하나님께 취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을 내가 멀쩡한 내 정신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은 결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취하느냐? 하나님을 마주봐야 하나님께 취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흠뻑 빠지는 것처럼, 맨날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고 있다가 돈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봐야 하나님께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는 길을 그 안에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민이 될 것을 원하셨기에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시려고 그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 마주보게 되는 그 길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사건 안으로 흡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는 길일까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미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나 자신한테 들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나 자신한테 들킬 일이 없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한테 들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내가 들키는 겁니까?
내 마음의 빈 공간 안에 너무 많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으므로 내 마음이 더러워졌고, 가족이 더러운 게 아니지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졌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율법이 앞에 제시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기에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인가?'라고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들켜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양을 가져와서 죽이고, 피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살을 각을 떠서 저며 뼈까지 다 넓게 펴서 태워버립니다, 내장과 뼈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양의 죽음 옆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내 안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돼서 대신 죽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비로소 마음의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전에서 마주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도록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성전의 제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잘못 되었느냐?
문제는 나 자신이 발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더러움과 흉악함을 들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발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발각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 부모공경,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웃의 재물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때문에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사회법적으로 제제를 당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내가 구속되게 되면 내 가족들이 불쌍하게 되니까…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인하지 않습

니다.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어요, 너무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살인을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감옥에 들어가서 망가질까봐,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내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을까봐.
마음에는 간음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들키면 큰일 날까봐, 가정이 파탄될까봐, 가정 때문에 간음을 안 합니다.
내 자식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도둑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청백리로 살아갑니다.
이건 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왜 지켰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지킨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복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켰다는 얘깁니다.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6계명을 평생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좋아서 다른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라는 게 내가 섬기는 신이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의 세 계명,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곱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 많이 벌려고, 내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좋아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죄악이고 더러움인데, 그 죄악되고 더러운 내가 발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의미가 내가 발각된 자로서 제물이 비참하게 각을 떠서 불태워 죽게 될 때 내가 죽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가 거꾸로 돼서 내가 들키지 않은 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채로 완전히 가려진 채 제사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이방종

교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한 사건이 성전정화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 자신들에게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은 채, 너희 자신에게 커버되어서 가려져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키는 율법과 너희가 하는 제사행위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율법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를 함축해서 성취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삼 일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이 갖고 있던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 어떻게 마주봅니까?
율법의 의미가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한테 발각되어야 되요.
주님의 십자가사건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집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서 머리에 피가 흐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창에 찔려서 피가 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취급을 당해야 마땅한 게 내 모습인데! 하고 내가 나한테 들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주신 의미가 여기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저 모습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면서 죽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너무 더럽고 추악함이 사지와 뼛속까지 스며들고 내 마음의 모든 세포조직까지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고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에 연합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처참한 모습이 나라는 것으로 내가 나한테 들켜버리고 발각되고, 발각된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이고, 이렇게 죽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따라 부활해서 보면, 앞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비로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좋아서 다 들여보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졌는가를, 십자가를 보면서 깜짝 놀라며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난 뒤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따라 부활하고서야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볼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취합니다.
포도주를 마셨을 때 포도주의 기운이 온 사지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취하고, 하나님께 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 밖에서 제시되었는데, 율법처럼 제시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인생에 나에게만 주어지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들이 포도주 기운이 겉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취한 상태에서 사지로 주렁주렁 행위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처참한 주님의 모습에서 내가 나에게 들켜야 되는 것이고, 들킨 나를 보며 좌절하면서 이건 죽어야 끝이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다시 내 마음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때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마주보게 되고 하나님께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모습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들키게 해주시고, 들킨 나의 모습에 나 스스로 좌절하여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며, 주님이 부활할 때 은혜로 따라 부활하므로 드디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로써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취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